“소설·영화 통해 성장 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

350회 맞는 ‘20세기소설영화독본’
2009년 1월 ‘축제’로 시작 15년째
영화·원작소설 348편 보고 읽고 토론

조대영 디렉터

‘20세기소설영화독본’이 7월로 350회를 맞는다. 100권의 책과 100편의 영화 목록을 완성한 김용완씨(오른쪽 아래)를 축하하는 모습. 〈조대영 제공〉

‘20세기소설영화독본’(소설영화독본)은 원작 소설을 읽고 영화를 보며 다양한 토론을 하는 인문학 모임이다. 2주마다 한 번씩 광주영화의 집에서 모임이 열린다.

소설영화독본이 오는 7월로 350회를 맞는다. 지난 28일로 348회 모임이 진행됐으니 소설과 영화 각각 348편씩을 읽고 봐 온 셈이다. 얼추 15년, 정확히는 14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

하나의 모임이 만들어져 2주마다 한 번씩 15년을 지속해온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소설영화독본을 이끌어온 조대영 동구 인문학당 프로그램디렉터는 “어떤 모임을 만들기는 쉽지만 오래 유지되는 것은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15년을 쉬지 않고 지속해 온 것에 대해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모임을 지속하며 많이 배우고 인간적인 성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소설영화독본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지난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조 씨는 ‘굿펠라스’라는 모임을 만든다. 영화를 보고 토론하는 모임이었는데 이때부터 영화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했다.

“많은 영화를 접하다 보니 원작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착안해서 만든 것이 소설영화독본이죠. 기존의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은 많은데 영화와 소설을 접목해서 진행되는 모임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조 디렉터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좋아한다. 소설과 영화는 이야기 예술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즉 이야기 속에는 인간의 희로애락이 녹아 있어 소설과 영화 속 인간을 만날 수 있다.

첫 모임은 2009년 1월 7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당시 작품이 안소니 퀸이 조르바로 열연했던 ‘그리스인 조르바’. 초창기에는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모임을 하다가 이후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후로 다양한 작품을 만났다. 그는 “‘제인 에어’를 비롯해 ‘폭풍의 언덕’, ‘적과 흑’, ‘마담 보바리’, ‘센스 앤 센서빌리티’, ‘맥베스’, ‘안나 카레니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백경’ 등의 고전은 물론 20세기에 쓰여진 수많은 소설들도 읽었다”며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미국 그리고 남미 작가들의 소설들을 두루 섭렵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접한 348편의 목록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해 다양한 작품들이 포함돼 있다. 또한 이를 원작으로 만든 영화들을 통해 다양한 감독과 배우들을 만나기도 했다.

조 디렉터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으로 첫 모임에서 다룬 ‘그리스인 조르바’를 꼽았다.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쓰고 미카엘 카코야니스가 영화로 만든 ‘그리스인 조르바’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히 행동하는 인간으로 현재를 후회없이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언급했다.

파스칼 키냐르가 쓰고 알랭 코르노가 영화로 만든 ‘세상의 모든 아침’도 소설과 영화 모두 만족스러운 작품이다. “예술이란 무엇이고, 예술가란 누구인가를 사유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렇단다.

“한국 소설과 영화로는 ‘만다라’가 기억에 남아요. 1979년 출간된 김성동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임권택 감독의 ‘만다라’(1981)는 한국 종교영화의 걸작이자 한국영화의 자랑이라 할 수 있지요.”

모임에는 참석하는 이들은 동화작가, 비엔날레 도슨트, 전업주부, 직장인, 공무원 등 다양하다. 간혹 모임에 참석하는 분들도 있고 카톡방에 초대된 회원수는 28명이다. 이 가운데 지난 5월 31일에 100권의 책과 100편의 영화 목록을 완성한 김용완 씨라는 회원이 인상적이다.

조 디렉터에 따르면 김용완 씨는 무엇보다도 책을 꼼꼼히 읽는 회원이다. “책을 읽어가면서 관련 정보들을 메모하고 토론시간에는 마음에 드는 대목을 낭독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9년 1월 모임에 나온 이후 53개월 만에 100권의 책을 읽은 셈이다.

그러나 김용완 씨는 “한달에 겨우 2권 꼴로 읽은 것은 자랑거리는 못 된다”고 자신을 낮춘다. “정년을 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모임에 들어선 이후 ‘심심해 할 틈이 없고 오히려 시간이 없어 늘 잠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모임은 소설과 영화라는 두 매체를 비교하며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시야가 확대되는 장점이 있다. 혼자라면 접하지 않을 작품을 함께 볼 수 있어서 취향도 확대된다.

하반기 프로그램도 대략 짜여졌다. 귄터 그라스의 ‘양철북’, E.M. 포스터의 ‘모리스’ 오노레 드 발자크의 ‘나귀 가죽’, 서머셋 몸의 ‘달과 6펜스’를 읽고 이 소설들을 영화로 만든 작품들을 만날 예정이다.

90년대 중후반 수십여 차례 영화상영회와 영화강좌를 연 이후 조대영 씨는 한결같이 ‘영화’의 길을 걸어왔다. 2012년 부터는 광주독립영화제를 10년 간 이끌었으며 영화평을 묶은 ‘영화, 톱다’를 펴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ACC에서 열리고 있는 ‘워니초적 비디오 본색’ 전시로 이목을 끌었다. 영화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는 천생 영화인이었다.

“나에게 영화란 ‘종교’와 같은 것입니다. 영화는 나를 성장시키고 영혼을 성숙하게 만들어 주죠. 영화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배울 수 있으니까요.”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시립창극단이 ‘입춤소고’를 추는 모습. 〈광주시립창극단 제공〉

‘하늘과 땅이 모두 대단히 기뻐한다’

광주시립창극단 ‘환천희지’ 공연…30일 공연마루

창극은 전통적으로 창자와 고수가 민중의 한(恨)을 풀어내는 음악으로 알려져 있다. 창극에 토대를 두면서 ‘민요 메들리’나 ‘소고춤’ 등을 곁들인 공연이 열려 눈길을 끈다.

광주시립창극단의 창극 ‘환천희지(環釧喜支)’가 30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울려 퍼진다.

환천희지는 ‘하늘과 땅이 모두 대단히 기뻐한다’는 의미로 공연이 담아낼 주제를 압축한 것이다.

공연에는 여러 곡을 이어 붙이는 기악곡 ‘민요 메들리’가 예정돼 있으며 가야금에 정해성, 피리에 김원근, 해금에 이소리, 장단에 한정민이 나선다.

허튼춤으로도 불리는 ‘입춤소고’도 기대를 모은다. 전통춤의 가장 기본형인 이 작품은 우리 창극의 즉흥성을 맛볼 수 있다. 한명선, 정숙희, 이현희, 황소희, 김영연, 이정민이 무대에 오른다.

경기민요 뱃노래를 원전 삼아 남도 육자배기 선율을 입힌 ‘뱃노래, 동해바다’도 무대를 채울 예정이다. 이외에도 졸보가 제비 다리를 고쳐주는 단막창극 ‘화초장’, 쇠와 징, 장구와 버나, 죽방울, 태평소 등 다양한 악기가 함께하는 ‘판굿’이 진행된다.

전석 무료.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 참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존재에 대한 사유 ‘인간은 누구인가’

오명규 시인, ‘인생 12진법’ 펴내…시 134편 수록

“카시어페이와 북두칠성/ 그 중간 쯤에 고리 하나 걸어놓고/ 우주를 울리는 종은 없는가/ 기나긴 인고의 밤 넘어/ 긴 잠에서 눈 비비며 다가오는 새날/ 오색빛 하늘을 열고/ 영혼들이 하늘을 열고/ 영혼들이 눈을 뜨는/ 세상을 울리는 종은 없는가…”(‘종소리’ 중에서)

광주문인협회장과 ‘문학과 비평’, ‘시학과 시’ 주간을 역임했던 오명규 시인이 여섯 번째 시집 ‘인생 12진법’(한림)을 펴냈다.

시인은 그동안 존재에 대한 사유와 사물에 대한 자기성찰을 노래해왔다. 인간은 누구이며 존재란 무엇인지와 같은 무거운 주제가 화두였다. 그의 작품에 감성보다는 사색과 사유, 관찰보다는 탐색과 탐구와 같은 심오한 여정이 드리워진 이유다.

이번 작품집도 그러한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는 시들을 담고 있다. 134편으로 엮인 연대시는 이전 작품과 다음 작품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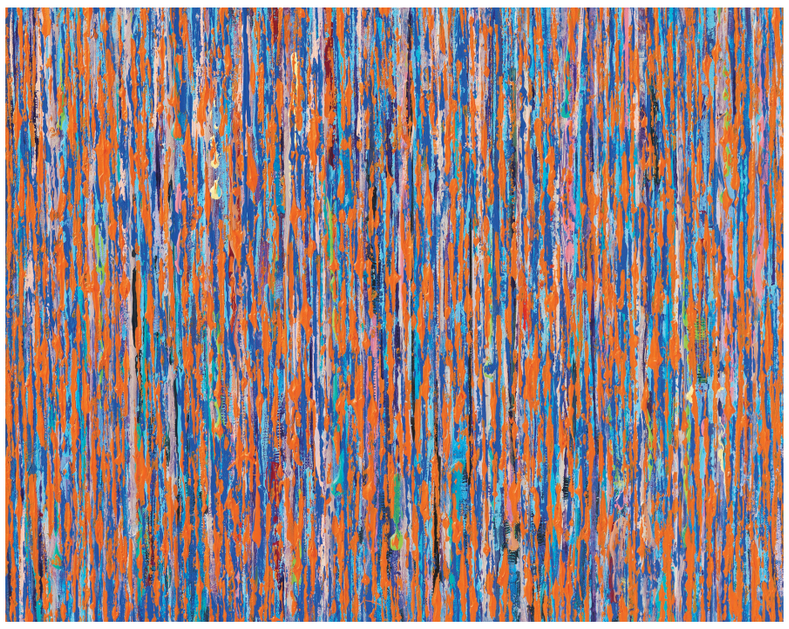
작품집은 제목 ‘인생 12진법’이 말해주듯 모두 12개라는 소주제에 따라 구성돼 있다. ‘너와 나’를 비롯해 ‘사랑’, ‘죽음’, ‘고독’, ‘선과 악’, ‘역사’, ‘교육’, ‘말’, ‘아름다움’, ‘마음’, ‘신뢰’, ‘후회’ 등이 각각의 소주제다.

“구름 타고 흘러왔나/ 바람 밟고 달려왔나/ 김노인 집 앞 마당에 뒹구는/ 이파리 하나 둘 눈을 뜬다/ 어디서 본 낯익은 얼굴인데/ 묵묵부답이다/ 버릴 것 다 버리고/ 비울 것 다 비우면 만나는/ 우리들의 민낯인가…”

위 시 ‘낙엽에 관하여’에서는 삶을 관조하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화자는 ‘낙엽’을 “버릴 것 다 버리고 비울 것 다 비우는 우리들의 민낯”으로 상정한다. 화려했던 시절이 가고 나면 결국 버리고 비울 수 밖에 없는 삶의 종착지에 다다른다는 의미다. 삶의 유한성, 그러하기에 겸허해야 한다는 무언의 가르침이 배면에 깔려 있다.

한편 오명규 시인은 지금까지 ‘꽃잎에 이르는 말씀’, ‘지구가 흔들리고 있다’, ‘빛을 타고 오르는 소리’, ‘너를 바람이라 불러도 좋으랴’ 등을 펴냈으며 광주시 시민대상(예술분야), 박용철문학상 본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빛의 노래’

투박한 자연 감성 ‘빛과 색의 언어’

함영순 개인전, 30일까지 생각상자 갤러리

“나에게 자연이란 끊임없이 질문하고 묻는 나의 스승이다.”

함영순 작가에게 자연은 그러 존재다. 나와의 대화를 넘어 앎을 깨우치고 확장해 주는 스승이다.

함 작가가 동구 생각상자 갤러리에서 오는 30일까지 ‘빛과 색의 언어’를 주제로 개인전을 진행 중이다.

모두 30여 점의 작품은 남도의 밝은 빛과 소박하면서도 투박한 자연의 감성을 담고 있다.

작가에게 영산강 드들강변 마을에서 보낸 유년 시절은 감성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강을 건너 사계절 변화하는 들판을 가로질러 가는 학교 길은 그 자체로 행복이었다. 자연의 정취를 느끼고 자연의 섭리를 생각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당시의 기억과 경험은 자양분이 돼 이후의 작품에 고스란히 발현이 됐다. 남도의 고유한 색감과 자연에서 체득된 경험 등이 단순화된 색과 기하학적인 형태의 추상으로 형상화됐다.

작가는 대학 졸업 후 중·고등학교에서 미술 교사로 재직하다, 퇴직 이후 후 본격적인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다.

함 작가는 “최근 작업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다양한 색들이 중첩되고 겹치면서 표현되는 특징을 지닌다”며 “유년 시절 자연을 매개로 내면에 스며든 심미적 기억들이 다양한 질감과 색채, 비형상적인 형태로 발현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함 작가는 전남대 미술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며 2023 광주·전남여성작가회전, 국회 한마음 여류작가 초대전, 전국 여류 화가 초대전 등 그룹전 및 단체전 150여회 참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산문화예술회관, ‘마이 리틀 뮤지컬’ 참여 어린이 교육생 모집

광산문화예술회관이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마이 리틀 뮤지컬’에 참여할 3기 어린이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은 오는 8월 5일부터 26일까지 매주 토요일(총 4회) 진행되며 광산문화예술회관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한다.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에게 종합예술 뮤지컬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기획했다. 뮤지컬 시연부터 공연장 백스테이지 투어,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입체적 교육, 해설이 있는 관람 등으로 구성됐다.

지원 자격은 광주에 거주하는 초등생부터 중학생, 혹은 그에 해당하는 청소년이면 해당된다. 학부모도 동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1기에서 뮤지컬 ‘망월’, 2기에서 음악극 ‘상원’을 감상한 데 이어 3기는 ‘헨젤과 그레텔’을 감상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교육 일정은 ‘감상하며 놀자(1일)’, ‘노래하며 놀자(15일)’, ‘춤추며 놀자(22일)’, ‘표정으로 놀자(28일)’로 구성됐다. 뮤지컬 역사부터 구성, 제작 과정, 캐릭터 분석 등을 함께 공부하고 감상 후기도 표현하게 될 예정이다.

수강료 무료, 선착순 25명 모집하며 자세한 내용은 광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참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